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4월 ~ 5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식품첨가물, L-테아닌, 유화제, 향신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AVA, 식품첨가물, L-테아닌, 유화제, 향신료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식품 첨가물 규정한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식품 첨가물 규정안 개정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은 2017년 4월 1일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1조 유화제 및 안정제, 제23조 향신료, 제28조 범용 식품 첨가물 조항 등 3가지 조항 개정되었다. 제21조 개정 사항에 따르면 식품의 점착성 및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증진하며 식품의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품 첨가물인 ‘퀵라야 추출물’을 청량음료와 주류에 첨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제23조에서는 식품의 풍미를 향상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향신료인 ‘L-테아닌’을 차, 청량음료, 초콜릿, 초콜릿 및 설탕 제과에 첨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에서는 ‘식품 제조 용재’를 포함한 범용 식품 첨가물을 액체, 건조 및 열 응고 계란 제품에 첨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6년 8월 23일 AVA는 대만 ‘춘추이허(純萃囑)’ 브랜드의 ‘저스트 드링크 밀크티’가 비허가 식품첨가물인 L-테아닌을 사용해 리콜을 명령했다. 그로 인해 춘추이허는 향신료 L-테아닌을 제거한 밀크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식품 첨가물 규정안 개정으로 인해 춘추이허가 본연의 향을 살린 밀크티를 다시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VA는 청량음료 제품군에 2011년 첨가물 첨가 허용, 2012년 거품 방지제 첨가 허용, 2016년 감미료 첨가를 허용하는 등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제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내 식품 첨가물 규제를 점차 줄여나감에 따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싱가포르 시장 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여태까지 싱가포르 시장 내의 높은 식품 안전성 기준 때문에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이번 식품 첨가물 개정안을 참고하여 시장 진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싱가포르 내에 진입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넓어진 식품 첨가물 활용 범위를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수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un Cui He milk tea is back in Singapore, now without unapproved ingredient, mothership.sg, 2016.12.30
Singapore Food Regulation, Singapore Statutes Online, 2017.4.1